

# 어두운 시대에 빛을 찾는 작가들

김이태·김남일·강규의 소설집을 읽고

문홍술

문학평론가

소설은 한 시대의 시지프스상이 아닐까? 그것은 시대의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 고뇌하고 방황하다가 결국에는 흔적도 없이 자신을 산화한다. 그러나 그 산화는 허무하지 않다. 그 자리에 새로운 시대를 갈망하는 생명의 씨를 잉태하기 때문이다. 그런 소설은 시대의 뒷에 걸려 속물화되어 있는 우리의 감성을 파고들어 우리의 반성적 사유를 고통스럽게 들추어내면서, 새로운 세계를 향한 비상의 날개를 펼치도록 만든다.

흔히들 신세기가 도래하고 있다고 한다. 21세기는 지금까지 그 어떤 시대도 가져다 주지 못한 미증유의 행복한 삶을 보장해 줄 것이라는 기대감에 들떠 있다. 그러나 무시무시하게 치달리는 자본의 가속도 열기에서 조금만 벗어나 비판적 인식을 확보할 때, 그러한 기대감이 얼마나 위험한 망상인지 깨달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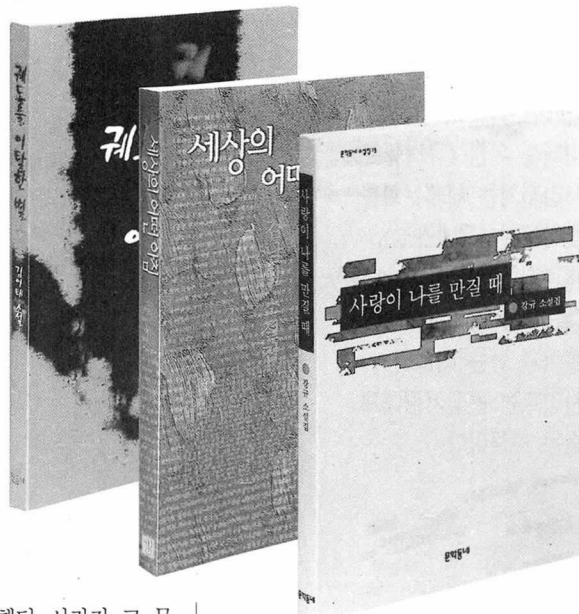
모든 것을 정보 메커니즘의 한 기호로 획일화시키는 절망적 현상들을 감지하지 못하고 가속도의 열기에 무비판적으로 편승할 때, 다가올 새로운 세기가 어떠한 모습을 펼치는 자명하다. 사방이 막혀 있는 폐쇄공간. 그 공간을 탈출할 수 있는 그 어떤 새로운 인식론상의 지도가 보이지 않는 시대. 그것이 새로운 세기를 앞둔 우리 시대의 자화상일 것이다. 그래서, 이 암울한 시대에 대한 비판적 성찰과 그것을 극복하려는 고통스러운 몸부림을 내포하고 있는 작품을 만나는 것은 칠월 같은 어둠 속에서 한 줄기 광명의 빛을 만나는 것과 같은 기쁨이 아닐까?

## 이념상실의 시대를 사는 방식

김이태의 《케도를 이탈한 별》(민음사)과 김남일의 《세상의 어떤 아침》(강)은 80년대를 지배했던 마르크스 이념이 불가능해진 시대를 살아가는 방식을 탐구하고 있다. 김이태는 이념을 불가능하게 하는 90년대의 현실 케도로부터의 이탈을, 김남일은 이념의 생활화를 각각 지향하고 있다.

김이태는 90년대를 이념 상실의 시대로 규정한다. "자신을 부끄럽게 했던, 그나마 비판의 눈을 가지게 했던, 돈이 제일의 가치가 아니라고 당연하게 말할 수 있게 했던, 정신 없이 잃어버리기만 하는 세상살이에 조금이라도 연결고리를 비추어 주었던, 인생을 그

**김이태와 김남일은 80년대를 지배했던 마르크스 이념이 불가능해진 시대를 살아가는 방식을 탐구하고 있다. 반면, 강규는 그런 시대적 특수성을 넘어 천세불변의 것을 탐구한다.**



나마 진지하게 대하게 했던, 사라진 그 무엇'의 시대가 90년대이다. 80년대의 시대적 모순에 맞서 치열하게 싸웠던 이념, 그 이념의 세계는 사라지고 현실은 허상으로 다가온다. 그 허상의 세계에는 온갖 정보 메커니즘이 횡행하면서 우리의 꿈과 감각기관을 통째로 집어삼킨다. 브레이크가 풀린 자본의 무서운 가속도의 열기에 이념의 불꽃도, 삶의 열정도 모두 녹아버리고 남은 것은 지루하고 덧없는 일상뿐이다. 이념에의 산화가 불가능하고, 혐오스러운 '암전한 일상'만이 있는 시대. 김이태는 그러한 시대에 안주하기를 거부한다.

그는 일상에 함몰되기를 거부하고 '스타카토로 현을 튕기는 듯한 탕탕한 삶'을 살고자 몸부림친다. 그런 삶은 현실에 인형처럼 안주하여 '건전하고 확실하게 살고 싶은 욕망'의 삶이 아니다. 그 삶으로부터 이탈한 삶, 곧 '생활의 틀도 없고 매력도 있고 감수성'도 있는 삶이다. '별건 상체들의 열기' 곧 자본의 메커니즘에 의해 각질화된 육체를 뚫고 분출되는 악마적 불꽃들이 별경계 피부를 달아오르게 하는 삶이다. 그것은 마리아나와 코카인의 몽롱함, 그리고 도덕적 이탈과 성적 불륜이라는 자유분방함이 있는 삶이다. 그것은 우리의 무의식 저층에 자리 잡고 있는, 그 어떤 이념에도, 그 어떤 획일화된 제도에도 길들여지지 거부하는, 현실적인 것으로부터의 '절단'에 입각한 삶이다.

그러나 그 절단은 강력한 현실의 외파에 의해 강력히 통제된다. 현실과 절단의 틈바구니에 끼인 채 김이태는 이탈에의 꿈을 꾸

면서 현실을 표류하고 있다.

## 이념의 생활화로 '사막' 건너기

김남일은 90년대의 현실을 '사막'과 같은 곳이라 규정한다. 그 사막에서, 80년대 저 확신에 찬 신념으로 무장한 채 현실변혁 운동을 벌이던 이들이 전망을 상실한 채 방황하고 있다. 때로는 변절을 하고, 때로는 새로운 현실에 적응하지 못한 채 비정상적인 삶을 영위해간다. 현재의 삶의 모양이 어떤 형태이든, 이들 모두 좌절된 이념에 대한 기억으로 인해 고통스러운 삶을 영위한다.

김남일은 그 구체적인 모습을 전교조 운동으로 해직된 교사들의 삶에 대한 형상화를 통해 제시하고 있다. 그러면서 김남일은 이념이 불가능해지고, 모든 것이 변질되어 가도 결코 변하지 않는 '희망'을 지닌다. 그 희망은 '이념의 생활화'로 규정될 수 있는데, 곧 전교조 활동의 근본 목표인 '아이들 제대로 키우기'가 그것이다. '좋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아이들을 키우려는 꿈이야말로 80년대에 공허한 메아리로 울려 퍼진 이념을 삶의 세부로 치환하는 것이며, 나아가 모두가 변절하는 시대에 있어서 최소한의 자신의 지조를 지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김남일의 이 자리는 일정한 한계를 지니고 있다. '좋은 세상'이 '대통령 선거'를 통한 정치혁명이라는 측면에 의해 설정될 때, 그 한계는 뚜렷하다. '아이들 제대로 키우기'를 방해하는 것은 타락한 정치제도라도 관련이 있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그런 정치제도를 산출하는 타락한 자본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천착 없는 현상적 차원의 접근은 타락한 자본의 가공할 위력 앞에 쉽게 함몰되거나 또다른 절망을 가져올 수 있다는 뼈아픈 기억을 우리는 80년대에 이미 경험하였다.

## 천세불변의 것 탐구

김이태와 김남일이 80년대와 90년대의 특정 상황과 관련을 맺고 있다면, 강규는 그런 시대적 특수성을 넘어선 자리에 위치해 있다. 강규의 소설집 《사랑이 나를 만질 때》(문학동네)의 핵심은 시간의 흐름 속에 모든 것이 소멸해가는 과정에서 천세불변의 것을 탐구한다. 소설 화자들은 대개 30대 전후의 인물이다. 그들은 '기슴이 저릿저릿한 내열'로 20대의 젊은 시절을 보내왔다.

그러한 열기 넘치는 시절은 30대가 되어 사라지고, 자기 안에 감도는 소멸의 기운을 감지하면서 허탈과 무기력함에 빠진다. 세월의 덧없음에, 인연의 어긋남에 괴로워하면서 불면의 밤을 지새 뒤에 남는 것은 쓸쓸한 추억과 그 추억을 아픈게 되새김질하는 것뿐이다. 열기가 식고, 기슴아픈 추억에 대한 미련만이 남아 있는 환멸스러운 현실 앞에서 강규의 인물들은 불변의 것을 지향한다.

모든 것이 시간의 흐름에 '소멸되는 사막'에서 영원히 남아 있는 그 무엇, 그것이 '정금(精金)과 같은 마음'이다. 모든 불순물을 걸러내고 정련된 금, 그 금에 아로새겨진 국화문양 같은 정련된 영혼이야말로 소멸의 시간 속에서도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이다.

강규는 이처럼 내열의 단계를 지나 정련된 금과 같은 영혼을 지향하는데, 그런 정련된 영혼을 그는 자연스러움과 결부시킨다. 곧 인간과 자연이 더불어 공존하는 자연스러운 세계로 정련된 영혼을 심화시킨다. 그것은 시간이나 세월의 흐름과는 무관한 순진한 어린아이의 세계이며, 나아가 인간 영혼의 근원적 고향인 물 속, 혹은 어머니의 자궁 속 같은 세계이다. 그 세계야말로 특정 시대와 특정 상황을 넘어 모든 인간이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시원의 공간이자 영원한 이념적 좌표일 것이며, 나아가 이 세기말의 어두운 시대를 헤쳐나갈 강력한 한줄기 빛일 것이다. ◆